

한양대학교 2015년도 신입학전형 모의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인 문 계

■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본 논술 문제는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화법과 작문> 내용 성취 기준 가운데 ‘설득’과 관련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출제하고자 하였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5) 논증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안다. (16) 설득하는 담화나 글의 구조와 내용 조직의 원리를 이해하고 청자와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18)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연설한다. (20) 논제의 필수 쟁점을 분석하여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한다. (22)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글을 쓰며 글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 (24) 독자나 글의 유형에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이에 본 논술 문항은 논증 및 설득과 관련한 메타적 이해와 그 적용 및 표현 능력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동안 수능은 이해만을, 논술은 표현만을 분리하여 다루던 경향을 넘어서서, 논증 및 설득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의 적용 및 표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질문과 이에 기초하여 그 능력을 공동체의 현실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작문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적용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사적인 문제인 동시에 배경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 없는 ‘게임 규제’ 관련 논의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제시문으로는 논증 및 설득과 관련하여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동서양의 명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가>는 동양고전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유명한 「세난(說難)」편의 일부를 직접 인용한 것이고, <나>는 서양고전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내용을 고등학생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설한 것이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2015 대수능 연계 교재인 EBS 국어영역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B형』 211면에 실린 지문을 축약한 것이다. 이처럼 제시문은 동서양의 고전 읽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논술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 어울리게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문항 및 제시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제시문 <가>는 성취 기준 (16), <나>는 (15), <다>는 (18)과 관련이 깊고, 문항 (1)은 성취 기준 (20)과, 문항 (2)는 성취 기준 (22)와 관계된다. 즉 이번 논술 문제는 논증 및 설득과 관련한 포괄적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로서 분석적, 종합적 사고 능력과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및 창의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제]

1. 평가의 내용

- 1) 제시문에 드러난 내용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여 비교 분석하는 능력 평가
- 2) 이를 종합하여 적절한 위협 소구를 활용하면서도 상대의 신뢰를 얻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문제 해결 능력 평가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전체 구성 및 전개	제시문 <가>~<다>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논제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순서로 전개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논의의 구성 비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15%
내용 이해 - 제시문 내용 파악 - 제시문 관계 파악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내용 파악의 정확성</div> <div style="width: 60%;"> <p><가> : 설득에 성공하려면, 말주변이나 정보/지식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말하되, 상대가 민감하게 느끼는 바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의 ‘설득’에는 현실적인 측면과 처세의 의미까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p> <p><나> : 성공적인 설득의 요건으로 화자의 특성, 청중들의 태도, 그리고 말 자체가 갖는 설득력 등 세 가지를 소개하고, 이 중에서도 설득의 관건은 진리이며, 결론의 진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타당한 논증이라고 주장한다.</p> <p><다> :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연구 결과, 정보 전달이나 설득을 대하는 태도 내지 감성에 있어서 수용자들은 이익보다는 손해에 더 민감하며, 따라서 대중 설득에는 ‘위협 소구’ 전략이 적절하다. 위협 소구의 설득 효과는 적절한 정도의 위협에서 제일 높다.</p> </div> </div>	15%

	비교 분석의 적절성	<p><가>와 <나>: 모두 설득의 요건에 대해 말함. <나>는 진리가 설득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으면서도, 이상주의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에 <가>는 설득에 성공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읽으라는,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충고를 주고 있다.</p> <p><가>와 <다>: 오늘날의 대중을 군주에 비견할 수 있다면, 대중에게 적절한 공포심을 유발하되 지나치면 안 된다는 <다>의 위협 소구 이론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되 '역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가>의 충고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의 경우 군주에게 "그렇게 하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포심에 호소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군주의 역린을 건드릴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p> <p><나>와 <다>: <나>와 <다>는 전자가 논리, 후자가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여 일견 대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의 '위협'이 제대로 통하려면 사실에 근거한 위협, 실증적 근거를 갖는 위협이어야 할 테고, 이런 경우 위협 소구는 진리에 호소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므로, <나>와 <다>가 반드시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는 <나>의 세 조건 중 대중이라는 수용자가 갖는 한 가지 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본다면 <나>의 필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점이 있다.</p>	25%
문제 해결 - 논리적 설득 - 독자 고려한 설득 - 위협소구의 활용	설득의 논리성	<p>청소년을 독자 대상으로 게임 규제를 옹호하는 설득적 글쓰기로 적절해야 한다. 첫째 기준은 <나>를 고려하여 논증 위주의 글쓰기를 논리적으로 잘 행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기준은 <가>를 고려하여 독자의 경제성에 적합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기준은 <다>를 고려하여 '위협 소구'를 활용하되 '역린'을 건드리지 않는, 즉 적절한 수준의 위협 소구를 활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30%를 주고, 탁월성이 인정되는 경우 5%를 가산해 준다.</p>	35%
	독자 고려의 적합성		
	위협 소구의 적절성		
문장 표현	정확한 단어 선택과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성을 갖추었다.	10%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95-90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 내용	<p>① <가>, <나>, <다>의 핵심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p> <p>② <가>, <나>, <다>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였다.</p> <p>③ 논증 및 상대에 대한 고려, 위협 소구의 활용 등 설득적인 전략이 모두 만족하게 구사되었다.</p> <p>④ 글의 형식과 내용 전개에 무리가 없으며, 문장 구사가 바르고 적절하였다.</p>	<p>①에서 ④까지의 항목과 핵심 내용 중 한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p>	<p>①에서 ④까지의 항목과 핵심 내용 중 두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p>	<p>- 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논제와 상관없이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 - 600자 미만.</p>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분량	950자 이상 1,050자 이내	1,050자 초과	900자 이상 950자 미만	850자 이상 900자 미만	800자 이상 850자 미만	750자 이상 800자 미만	700자 이상 750자 미만	650자 이상 700자 미만	600자 이상 65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30점
원고지 사용법· 어문규정	상 (0-1개 틀림)			중 (2-5개 틀림)			하 (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 ~ -2점			-3 ~ -5점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 -2점
- 단락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 -2점
- 단락 내의 형식적·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